

철 폐! 자본주의 · 가부장제의 여성노동 괴롭히기

자본주의가 성장하고, 성별이분법과 임금 노동이 확고해짐에 따라 여성들의 노동은 철저하게 평가절하되고, 은폐되어왔다. 남성 주체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것과 구분되어, 여성들은 사적인 공간이라고 규정된 곳에서 가사노동, 감정노동처럼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노동을 해왔다. 또한 남성중심적인 자본주의 사회는 여성의 노동에 대한 끊임없는 비가시화와 함께 여성들의 일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여성을 '일하지 않는 존재'로 낙인찍고, 이러한 낙인을 통해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여성들까지 '일 못하는 존재'로 내몰았다. 최근 들어 여성의 사회 진출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심지어 여성 상위 시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사회에서도 여전히 여성의 노동은 저임금 비정규 노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들은 여전히 공/사를 막론하고 감정노동과 가사노동의 압박 속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가부장적인 사회는 계속해서 이러한 여성들의 노동을 은폐하려 한다.

가부장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재생산 노동은 여성에게만 부과된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의 재생산을 위해 여성을 '어머니'로 명명하여 아이를 낳고 교육시키는 존재로 규정했다. 또한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남성들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존재로써 여성을 '아내'로 명명하고 그것을 자연스러운 여성의 몫으로 인식시켜왔다. 덕분에 여성들은 끊임없이, 쉼 없이, 또 너무나도 당연하게 재생산 노동을 요구받아 왔던 것이다. 공적인 영역에서도 여전히 남성 주체들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등의 감정노동을 여성이 수행해야 하는 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여성들을 다양하고 과중한 억압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사회의 가

부장적인 시선들은 청소, 비서, 승무원 등 특정 직업들을 '여성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끊임없이 여성의 노동을 남성의 노동과 다른 것으로 구분 짓는다. 그리고 이를 저평가하면서 저임금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든다.

수많은 일터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남성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60-70%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직장 여성의 64%가 성희롱 피해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는 여성의 노동을 외면하면서도 끊임없이 착취하고, 가부장적인 사회는 여성 섹슈얼리티의 억압을 통해 자본주의의 착취와 공모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러한 이중억압 속에서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다. 노동이라는 것이 이 가부장적인 사회와 완전히 분리 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은 역시나 섹슈얼리티의 억압과도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단순히 여남의 임금을 동등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여성 노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으며, 가부장제의 여성 섹슈얼리티 억압과 함께 문제제기 되어야 한다. 여성의 노동을 가시화하고, 그것의 정당한 평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여성도 돈 많이 벌고 싶으니, 여성이 하는 일을 높게 쳐달라'는 것이 아니다. 지금껏 은밀히 또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던 자본의 여성 착취와, 교묘하고도 잔혹한 가부장제의 여성 억압을 밝히고, 남성중심적인 노동관을 뒤집으며, 노동을 통해 여성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긍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연세대학교 20대 총여학생회

성큼 다가서는 일상의 여성주의 <틈을 누비다>

여성주의자로 연대하기

제목은 거창하지만 이 짧은 글로 "어떻게" 여성주의자로 연대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을 말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삶의 맥락에 따라 연대하는 지점은 다양하다. "어떻게 연대해야 하는가"는 끊임없이 여성주의로 소통하며 주체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짧은 경험을 공유하고 같이 여성주의적인 연대를 고민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대학교에 다니는 나는 학교에서 청소·경비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게 되었다.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여성노동자들이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일을 해왔다. 학교는 기업과 다를 바 없이 청소·경비 일을 최소 비용만을 들이기 위해 용역업체에 맡기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 계속해서 학교라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그녀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스스로 일어서기 전까지는 그녀들의 삶을 바라보지 못했다. 여성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는 나의 문제이기도 하기에, 바로 눈앞에 가부장적이고 자본주의 논리를 그대로 껴안은 학교라는 공통의 적을 가지고 있기에, 연대를 하게 되었다.

처음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서 어려웠던 지점은 "사오십대 여성 노동자들과 대학생인 나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였다. 나이주의가 막강한 이 사회에서 그 나이대의 여성과 대학생이 맺는 관계는 그리 다양하지 않다. 안 친하면 그냥 대학생-아줌마, 친하면 어머니-아들/딸이 경험할 수 있는 관계의 대부분이다. 동지나 같이 싸워나가는 친구로 관계를 상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었다. '똑똑한 학생들'이란 오해도 서로의 생각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 이 사회에서 그녀들을 억압하면서 만들어놓은 온갖 장벽들을 내가 깨기에는 막막했다. 결국 그녀들이 투쟁을 통해 자신의 삶과 노동을 긍정하게 되는 과정과, 끊임없이 여성주의로 대화하려는 노력 속에서, 서로의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자본가를 위한)법과 재력, 책임미루기 쉬운 관료제를 보유한 학교와 싸우는 과정은 지난하고 열 받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터져 나오는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자주 욕설이 나오곤 한다. 가부장제에서 만들어진 욕설 중에는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을

가진 것들이 있고, 그런 욕설을 통해서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배워온 사람들에게 "무조건" 그런 욕설을 쓰지 말자고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욕에 담긴 뜻을 이야기하고, 이런 욕들이 투쟁하는 과정에서 같이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지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말자고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다같이 하는 구호에 여성이나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투쟁의 과정에서 불편한 상황들이 언제 닥칠지 몰라 두려웠다.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이성애중심주의, 성별에 기반한 고정관념, 나이주의, 남성중심적인 문화-이런 것들은 이 사회와 마찬가지로 투쟁의 현장에도 어느 순간 불쑥불쑥 튀어나왔다. 우리를 위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문제제기가 될까 봐 걱정되었고, 그녀들의 투쟁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가 그 지지를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것으로 받아들여질까 봐 가슴 졸였다. 삶의 맥락이 다른 상황에서 어떠한 언어로 어떻게 소통해야 오해가 없을지 너무 어려웠다. 하지만 그렇기에 긴 시간을 두고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들이 자신의 삶에서 여성주의로 자신의 억압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많은 자원과 연대하는 과정에서의 상상력, 힘들겠지만 이끌어 나가고자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 같다.

예전에 이랜드 투쟁에서 비혼인 여성관리자에게 여성노동자들이 "노처녀가 히스테리 부린다"며 관리자의 노동자 탄압을 비난했다고 한다. 이때 "노동자를 탄압한 것은 '노처녀'서가 아니라 자본이 만들어 놓은 관리자라는 위치 때문이다"라는 문제제기를 통해 다음부터 다른 구호를 외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 쉽고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투쟁하고 연대하는 주체들 사이에 끊임없는 소통과 이해를 통해 같이 모든 억압들에 하나씩 하나씩 저항해 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녀들의 억압을 여성주의로 이야기하고, 나의 억압을 여성주의로 이야기하고, 그 여성주의가 만나서 세상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연세대학교 20대 총여학생회
성큼 다가서는 일상의 여성주의 <틈을 누비다>